

성병의 종류와 증상들

:: 이윤수 명동이윤수비뇨기과 원장

성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에이즈 감염확률이 더 높다.
성병은 인간의 신체에 몰래 스며들어 악영향을 끼치지만 그 증상이 뚜렷치가 않아 무관심하게
치부되기도 한다. 성병의 종류와 그 증상이 어떤지 살펴보자.



“술을 마셔서 제대로 관계한 건 아니
었지만, 아직 이상한 증상은 없구요. 3일
정도 되었는데 기분이 좀 그래요. 걱정도
되구요. 성병검사를 받으려 하는데 며칠

후에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받아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소변을 보려하니 따갑고 불편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요도염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떤 여자와의 관계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기숙사 룸
메이트가 임균성 요도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간 같이 수건을 쓴 적

이 있습니다. 룸메이트가 사위하고 님은 수건으로 차도 거의 동시에 사위하고 그 친구의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빨고 또 샤워를 거의 같이하는 정도죠.”

“여성인데요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증상이 웬지 성병인 듯 싶습니다. 매독에 걸려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나요? 사실 말하기 좀 쩡피한테 제가 어렸을 적 친척 오빠한테 성적인 장난을 많이 받아서 그때 감염 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요즘 성에 대한 개방 풍조를 반영하듯이 본 병원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성고민들이 올라온다. 상담을 하다보면 성병에 대한 오해와 걱정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병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위험한 성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막상 성병에 걸린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에 가기가 꺼려져 치료 시기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막연히 후회만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성병에 대한 조그만 지식만 있더라도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성관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성인성 질환이라고 하며 흔히 성병이라고 말한다. 성병에 대한 확실한 검사 및 진료를 받고자 원한다면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으면 된다.

성병검사의 종류

성병이 의심되면 일단 성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된다. 성병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피부에 이상을 관찰해 보는 것으로 기생충에 의한 옴이나 개선충, 사면

발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며, 매독이나 시혜부임파육아종, 헤르페스 등의 감염으로 인한 피부 발진이 있는지도 보게 된다.

둘째, 소변검사로 임질이나 비임균성 요도염과 같은 요도염의 감염여부를 확



인해야 하는데, 보통은 소변을 볼 때 따갑다든지 농이 요도를 통해 흐르는 등 증상이 있으므로 그 때 검사를 받아보아야 되고, 잠복기가 2일에서 2주 사이가 대부분이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검사를 해보아야도 무방하다.

셋째, 혈액검사로 매독, 에이즈, 간염 등을 검사한다. 매독은 혈액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기까지는 4주의 잠복기가 있고 에이즈도 한 달 반 이상 지나서 검사 볼 하게 된다.

성병의 종류

요도염은 인질균에 의한 임균성 요도염과 인질균 이외의 균에 의한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나뉜다. 비임균성 요도염의 주요 원인균으로는 클라미디아라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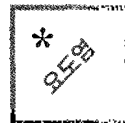
임질은 성경에도 기록되어질 정도로 오래된 질환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점막에 생기는 세균성 감염이다. 임균에 대해 선택적으로 효과적인 항생제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빈도는 1975년 최고조에 달했다가 지금은 완만하게 계속 감소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임균은 요도, 직장, 인두 및 자궁경부와 같은 성접촉 부위의 점막 표면에 감염을 일으키며 남성에서는 요도가 가장 흔한 감염부위이다. 구강 및 항문성교의 영향으로 이성교제의 남자에서는 7%에서 인두의 감염이 있고, 동성애의 남성에서는 40%에서 인두감염과 25%에서 직장 감염이 있다.

남성의 요도염은 질 또는 항문성교에 의해 전염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구강성교에 의해 감염된 인두로부터 요도로도 감염된다. 또한 질분비액에만 노출되어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잠복기간은 보통 3~10일이나 12시간 이후 3개월까지 사이의 어느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남성에서 증상은 요도 분비물과 배뇨시 요도작열감이다. 분비물은 보통 양이 많고 누렇게 화농성이지만 비임균성의 경우 점액성일 수도 있다.

여성에서 임균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요도염과 자궁경부염의 증상이 40~60%에서 있다. 요도염은 3~5일간의 잠복기를 거치며 빈뇨와 배뇨통을 호소한다. 요도입구의 발적과 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질분비액의 증가, 비정상적 생리, 성교통, 또는 배뇨통과 같은 비특이성 증상이 흔하나 50%는 무증상이다.





합병증으로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전부 요도로부터 후부요도, 전립선, 정낭 또는 부고환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요도 주위염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농양 형성, 요도 섬유화, 요도협착을 일으킬 수 있다.

부고환염이 생기면 불임증이나 고환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 위균감염은 전신으로 전파될 수 있다. 작은 암포성 구진이나 점상출혈이 팔과 다리에 나타날 수 있다.

진초염과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간염, 심근염, 심내막염 및 뇌막염도 드물게 볼 수 있다. 요도염의 치료를 위해 초창기에는 요도 내로 소독제를 적주하였다. 1940년대 페니실린으로 치료된 이후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차츰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여 임질치료를 위한 페니실린의 양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일부 임균은 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을 갖기 시작하였다.



음부포진은 헤르페스라고도 하며 주로 남녀 성기 부위에 발생하는 성병 중

의 하나로 임질보다 약 10배 더 흔하며 성기부위 궤양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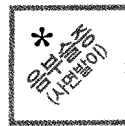
HSV는 생물학적 특성이 다른 두 형(type), 즉 HSV 1형과 HSV 2형이 있다. HSV 1형은 주로 구강 점막을 통한 일차 감염 이후 3차 신경절에 잠복 감염되어 재발성 구순염 및 구강염을 일으킨다. HSV 2형은 성활동이 활발한 사춘기 이후에 흔히 감염되는 흔한 성병 중의 하나로 성기 점막을 통한 일차감염 후 주로 척추 신경절에 잠복 감염되어 음부포진 및 자궁경부염 등을 일으킨다.



예로부터 망곡지병이라 하여 초기에는 그 증상이 미약하지만 만성적 질환이면서 감염력이 높아 법정 전염병으로 중요시 되는 질병이다. 50년대에는 항생제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고 그나마 부족하기도 하여 치유가 힘들었던 반면 증상이 뚜렷하였으나 최근 항생제 남용으로 대부분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잠복매독이 많아 환자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파양식은 감염된 병변부위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옮겨지며 주로 성교, 키스 또는 피부 상처를 통하여 전염된다. 분비물로 오염된 물체 또는 혈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극히 드물다.



인체에 기생하는 이의 종류에는 몸이, 머릿니, 음부이 세 종류가 있다. 이들은 생활습성상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는 거의 생존할 수가 없으며 특히 음부이는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성인 성 질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잠복기간은 약 30일이며 거의 성교에 의하여 전파되지만 간혹 침구나 좌변기의 좌석에 의해서도 감염되기도 한다.



콘딜로마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가 원인이며 주로 성교에 의해 전염되는 성병성 사마귀이다. 이 질환은 악성 종양인 자궁경부암, 표피내암으로 이행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